

研究論文

마을의 근대화 경험과 새마을운동*
- 이천 아○리¹⁾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영 미**

I. 서론	V. 결론을 대신하여: 새마을운동의 動 因들
II. 접근방법	<참고문헌>
III. 박정희 정부 이전의 마을공동체	<국문요약>
IV. 박정희 정부와 마을의 변화	

I. 서론

이 글은 일제시기부터 새마을운동기까지 한 마을의 변화과정을 미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농촌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내재적으로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다. 하나의 마을을 긴 시간동안 다루는 이 연구는 그동안의 주류적 연구경향이 일국적인 거대 단위를 짧은 시간 속에서 접근해온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그동안의 농촌연구가 국가의 지배정책사로서 접근되어왔으며 농촌사회 혹은 구체적 농민들의 경험 중심의 연구,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농촌사회의 내재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 본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01302).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근현대사 전공(kym6102@naver.com).

1)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는 이 마을은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국가의 농촌정책이 아닌 농민사회에 대해서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은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연구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앞의 한계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농민들에게는 연속적인 시간대였던 식민지시기와 해방이후 역사가 근대사와 현대사 연구자들에 의해 분절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근현대 농촌사회의 시기별·계기별 변화상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점이다. 1930년대 일제의 농촌진흥운동과 박정희 시기의 새마을운동의 유사성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유사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혁명적 정국’이라 부를 수 있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제1공화국기의 사회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건너뛴 두 시기의 비교는 형태적인 것 이상의 것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자본주의 사회로의 농촌의 변화를 농촌근대화라고 일컫는다고 하면 농촌근대화의 일획을 긋는 시점은 무엇보다 박정희 시기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경과하면서 농촌마을의 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농민들은 목표 지향적 혹은 개발 지향적 태도, 곧 근대적 신념체계를 내면화하게 되었다.²⁾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성공적인 농촌근대화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한 허구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이 운동의 역사적 독창성과 이 운동의 국가주도성에 대한 과대포장이며, 둘째는 농민사회에 대한 지나친 폄하이다.

박정희 정부는 한반도의 역사를 1970년 이전과 이후로 양분할 정도로 새마을운동을 전통과 현대의 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후된 농촌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시혜를 입어 잘사는 마을로 변모했다는 것이 정부발표 성공사례의 천편 일률적 레퍼토리다.³⁾ 심훈의 『상록수』가 집필된 당진군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이 심훈 때 당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관계기관’에 끌려가 고생했다는 에피소드는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독창성에 대한 과대포장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었는지 말해준다.⁴⁾ 이와 같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이

2) 박섭·이행, 「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31집(1997), 48쪽.

3) 내무부, 『영광의 발자취: 마을단위 새마을운동 추진사』, 1집(마을문고본부, 1978).

4)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호(1999), 66쪽.

테올로기는 여전히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의 배경을 농촌의 무능과 무기력에서 찾고 있다.⁵⁾ 그러나 농촌지역 새마을운동에서 물질적·정신적 동원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은 바로 ‘마을공동체’였다. 정책입안에 관련했던 인물들은 농촌 마을이 가진 이러한 자원에 주목하였기에 1960년대 시장권 중심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비판하고 마을중심의 새마을운동을 기획했다.⁶⁾ 1973년 100개의 마을을 둘러본 새마을운동 시찰단은 농촌마을에 광범하게 잔존하고 있는 공동체문화가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으로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마을중심의 단위설정이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⁷⁾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가 농촌의 자생적·자발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새마을운동으로 견인하려고 전력한 부분은 주목할 지점이다. 1971년 6월부터 박정희의 명령에 의해 시행된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에 마을지도자들의 사례발표는 농민들의 성공적인 경험들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곧 농촌마을의 경험을 국가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경제동향 보고에서 박정희에 주목된 마을지도자들의 수기들은 이들의 노력이 국가주도의 농촌사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준다.⁸⁾ 전후 황폐화된 마을을 재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많은 지

-
- 5)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농촌에 가보면 오랜 가난과 무지와 사회적 푸대접에 찌든 나머지 진취성이라든지 의욕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침체해 있다는 것이 과거 우리 농촌의 모습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농민이 아무리 농사일을 해 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체념, 또 남한테 어떻게 기대보자는 의타심이라든지 나태와 게으름이 농촌의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里仁’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어진 마을’로서의 고향개념은 꿈속의 觀念이나 東洋畵의 畵風에서만 남았었고 현실은 단지 서글프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에 빠진 빈곤한 村落이 되고 말았다. 새마을운동연구회, 『새마을운동10년사』(내무부, 1980), 97쪽.
 - 6) 지역사회개발계획은 마을을 단위로 하지 않았고 시장권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정하였다. 이후 시장권 중심의 지역설정이 효과가 낮으며 마을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에 받아들여졌다. 김영모, 『농촌지역사회조직론』(민음사, 1967), 167쪽.
 - 7) 김영모에 의하면 1973년 봄 서울신문 남제희 편집국장의 제의에 의해 농촌사회학과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새마을 평가팀을 구성하였으며 약 1년간 100여개의 마을을 현장 답사하면서 관찰, 분석한 결과를 신문에 발표하였다고 한다. 평가단은 김일철교수(서울대 문리대), 김대환교수(이화여대), 김문식교수(서울농대), 왕인근교수(서울농대), 이병동교수(동국대), 김성훈교수(전남대), 송해균교수(서울농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성공한 새마을운동과 그렇지 못한 인근 마을을 현지 답사하여 그 원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고현, 2003), 6쪽.

역엘리트들 가운데 성공한 자들은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박정희로부터 새마을운동의 기수로 포장되었다.)⁹⁾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는 국가 리더십의 효과나 리더십의 메커니즘 분석에 집중되어왔다. 이 분야의 논문은 197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생각되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박정희 정부에서 간행한 책자들이 이러한 연구의 기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편의 주목할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농촌마을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조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유병용 등의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신화가 과장되어 있으며 농촌새마을운동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농촌사회의 구조적 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⁰⁾ 민상기의 연구는 농촌 새마을운동에 많은 농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이 사업단위가 된 것과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자극하여 이를 주요한 참여 동인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¹⁾ 그리고 박섭·이행의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서 국가의 리더십보다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을의 정치조직과 기능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 연구는 특히 마을의 전통적인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마을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촌근대화운동의 경험이 중층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그동안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가주의적 접근방식의 제한성을 문제 삼고 시선을 ‘농촌사회’로 전환시켜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8) 초기 박정희 정부가 발견한 마을지도자들의 1950~60년대 자생적인 활동경험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간경제동향 보고에서 각도지사에게 의해 추천되어온 마을지도자들 가운데 8명이 발탁되어 이들은 일본과 대만의 농촌시찰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다음 책으로 엮었다. 그리고 이 책의 부록에는 이들이 박정희 앞에서 발표했던 수기가 실려 있다. 농림부, 『새마을로 가는 길』, 2집(1973), 319~396쪽.

9) 본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에서 1973년 새마을운동의 기수로 포장된 이재영이라는 인물이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과 1960년대 농협운동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지도자이며 박정희 정부는 이재영의 경험을 국가적으로 전유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김영미, 「어느 농촌운동가의 생애와 1950~60년대 농촌근대화운동」, 『민족운동사연구』, 제51집(2007).

10) 유병용·최봉대·오유석,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백산서당, 2001), 20쪽.

11) 민상기, 「농민의 새마을운동 참여와 마을공동체의식」, 『농촌경제』, 3-1호(1980), 89쪽.

12) 박섭·이행, 앞의 논문, 47~67쪽.

본 연구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투영되고 있는 과도한 국가주의적 시각에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자들과 관점을 같이 한다. 적어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있어 도시보다 훨씬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농촌사회에는 전통적인 자율적 영역들과 새롭게 침투하는 근대국가권력의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배정책에 대한 고려만큼 농민사회의 자율적 영역들은 주목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농민들의 생활공동체의 단위로서 기능해온 ‘마을’ 공동체 내부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농민사회의 근대적 변화를 내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리 마을은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자립 마을’ 표창을 받았으며 새마을운동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전개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성공사례는 이천지역 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발읍 일대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의 이면에 존재하는 마을의 역사적 경험을 추적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이면에 가려진 농촌근대화의 다원적 양상들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던 농민사회의 자율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는 국가주도의 농촌근대화운동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그러한 앞 시기의 국가주도의 정책들은 새마을운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마을사회의 영역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율적 노력들을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의 자율적 노력들은 국가주도의 근대화운동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었는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II. 접근방법

본 연구는 대상 시기를 1930년대부터 1970년대의 마을역사로 한정하였다. 1930년대라는 시기 설정은 첫째는 마을의 주요한 구술자들이 1930년대 생들이며 그 이전의 마을역사를 접근할 수 없는 자료적 한계에 의한 것이고, 둘째로는 일제시

기 국가주도의 관제적 농촌근대화운동이 1932년 7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추진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리고 하한시기를 1970년대로 잡은 것은 박정희 시기 새마을운동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제시기 농촌진흥운동의 시점부터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구술과 마을에 현존하고 있는 기념물, 기타 사진자료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마을에 대한 조사는 2000년 겨울부터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위원은 이천시사편찬위원회의 마을지조사작업팀의 일원이었던 본인 외 6명이었다.¹³⁾ 조사팀은 마을회관에 기거하면서 공식적으로 3차, 비공식으로 수차례의 보완조사를 통해서 마을 가호에 대한 전수 가구조사와 주민 3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때 본 연구자는 마을공동체의 경험과 이장권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이후 논문 집필을 위한 추가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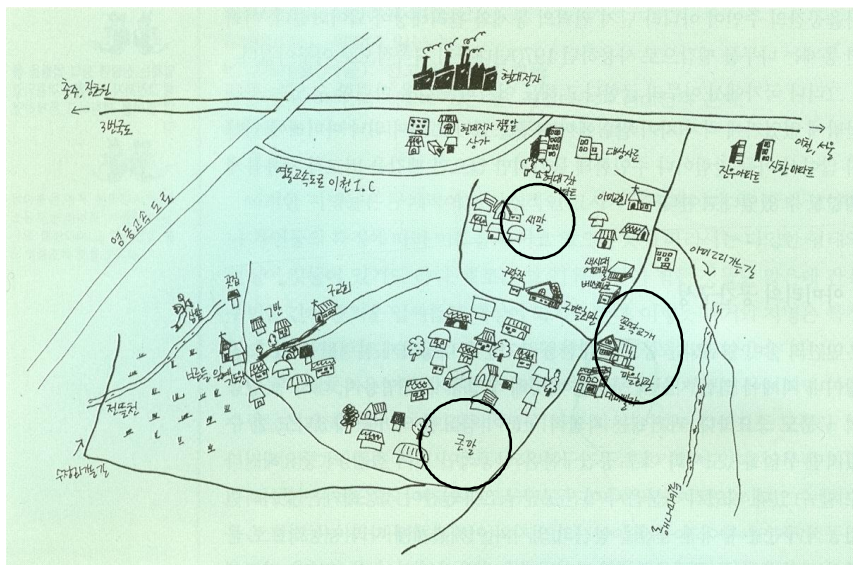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리 마을은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이천시 전체에서 이 마을이 가진 특징은 영동고속도로 이천인터체인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천에서 가장 큰 공장인 현대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는 동리라는 점일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는 1971년에 개통되었으며 현대하이닉스(구 현대전자)는 1983년 이곳에 입주하였다. 이 두 사건은 아○리의 공간과 주민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농촌마을인 아○리를 도농복합마을로 변모시켰다. 아○리의 인구는 일제시기에 약 60호에 300여명, 1970년대 말에는 약 120호에 600여명 정도였지만 19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이동인구가 늘어나면서 2000년에는 1,132가구에 3,326명으로 급증하였다.

마을 내부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리는 크게 3개의 행정동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하이닉스가 자리 잡은 곳은 3리이며 1리와 2리가 전통적인 농촌마을이다. 본 연구는 1930~1970년대를 대상시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주거공간이었던 1리와 2리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아○리의 구 마을은 새말과 큰말이라는 두 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두 마을사이에는 꼴딱고개 혹은 장등이라는 완만한 언덕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 위에 마을회관과 마을공유지(구

13) 이천시마을지조사팀은 이천 아○리, 나래리, 수광리의 3개 마을을 조사하였으며 구성원은 김영미, 문영주, 소현숙, 이상록, 이용기, 황병주, 허수이다.

마을정미소터)가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장등은 매우 가파른 언덕이었는데 새마을운동 시기에 장등을 깎는 공사를 하여 마을공동 부지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리 마을은 공적 공간인 장등을 중심으로 새말과 큰말이라는 두 개의 동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아○리 마을공간의 그림지도이다.

<그림 1> 아○리 마을의 공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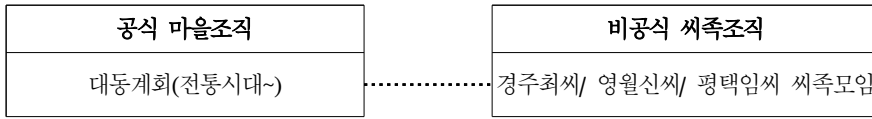


출처: 『이천시사』, 제6권(이천시사편찬위원회, 2001), 430쪽.

가운데 ○로 표시된 곳이 마을의 공적공간인 풀딱고개이며 이곳에 마을공유재산인 구판장, 구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 위에 ○표 구역이 새말이며 아래 ○표 구역이 큰말이다.

아○리 마을의 조직은 크게 마을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조직과 마을씨족집단들이 운영하는 비공식조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마을조직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2> 마을조직



- 공유재산(마을회관, 정미소, 구판장 : 일제시기~, 1950년대와 1970년대 확대)
- 청년회(일제시기~, 새마을운동기 재조직)
- 부녀회(일제시기~, 새마을운동기 재조직)

현재에도 이 조직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연구대상인 1930년대~1970년대에는 대단히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공식조직은 마을 토박이 세대주들의 모임인 대동계회가 있다. 이것은 과거에 마을재사인 동계를 수행하는 단위였으며 현재에는 마을회의가 열리는 단위이자 또한 마을대표인 이장을 선출하는 단위이다. 그 구성원들은 이장세를 낼 의무를 가지며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대동계회는 추측컨대 전통적으로 마을주민공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직이면서 또한 근대적인 국가권력에 포섭된 최말단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동계회의 하부에 청년회와 부녀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 직접적으로는 새마을운동기에 건설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일제시기에 조직되어 활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조직은 일제시기부터 국가 주도의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의 비공식적 조직으로는 씨족조직들이 있다. 이 마을은 각성반이 마을로서 여러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경주 최씨·영월 신씨·평택 임씨가 대성씨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에 지주가나 유력 양반가는 없었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자소작 계층이었다. 그러나 3개의 대성씨들을 각각 문중조직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적어도 1970년대까지 마을이 도농복합마을로 개발되기 전까지 이 조직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마을의 공식조직인 대동계회의 운영자인 이장권은 이들 씨족조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1950년대까지는 특별한 국면인 해방공간과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이들 씨족조직에서 이장이 배출되었으며 이장권과 마을이권을 둘러싸고 씨족간의 갈등이 상당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III. 박정희 정부 이전의 마을공동체

1. 일제시기: 국가주도의 근대화 경험

인근에서 보기 드물게 두 차례나 자립마을포상을 받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모범부락’ 아○리는 조사결과 흥미롭게도 일제시기 농촌근대화운동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가시적인 사실은 1930년대 중반 아○리에는 이천에서 가장 먼저 마을 공회당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사진 1>은 이 마을에 거주하는 경주최씨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회당 사진이다. 네모반듯한 벽돌

<사진 1> 일제시기 공회당과 구장



과 시멘트벽에 유리 창문이 설치된 건물 앞에 한 노인이 앉아있다. 사진 속의 노인은 이 마을공회당의 설립자인 최장환(崔章煥: 1870~1945) 구장이다. 그는 부발 일대에서 ‘최남파’로, 마을 내에게는 ‘노구장(老區長)’이라고 불렸으며 1945년 3월 사망하였지만 지금도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사진 2> 노구장의 근적비



아미리에는 노구장의 활약상을 추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념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사진 2> 노구장의 근적비이다. 이 비석은 1936년에 제작되었지만 본인의 반대로 설립되지 못하다가 그의 사후인 1945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대체로 이 비석의 제작 연대는 공회당의 설립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석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故 崔公章煥 勤績不忘碑

小農設稷 勤儉貯蓄 一里矚恤 視如家事 學業勤勉 隣里成風 嗚呼公蹟 永世不泯

최씨 종손가에서 직접 번역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적은 농사이시면서 근검저축하시여 계를 하시고, 한 마을을 어여삐 여기여 내 집같이 친히 하시고, 학업에 근면하심이 이웃마을에까지 성풍을 일으키시다. 오호 이 공적 영원토록 빛나리다.”

노구장에 대해서는 마을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다. 마을회관에 나오는 70대 노인들은 어리거나 칠들어서 노구장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세워진 근적비는 그에 대한 기억을 새 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먼저, 노구장의 계급적 기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에는 조선후기부터 양반 묘(완산 이씨)가 있었으며, 그는 4~5섬지기(약 100마지기) 되는 양반묘의 위토를 관리하였다. 당시 아○리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인들이었으며 위토를 관리하는 노구장의 집은 마을에서 상당히 잘사는 편이었다고 한다. 씨족적으로 노구장은 아미리 3대 대성의 하나인 경주 최씨였으며 영월 신씨와 평택 임씨는 경주 최씨가와 인척관계에 있었다. 그는 한학에 밝아 여주·이천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글을 배우러 찾아왔다. 현재 최씨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한시와 손자병법 필사본이 그의 한학 실력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최장환의 유시인데 거기에는 “양반도 아니면서 농군도 아니면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최씨 집안이 그다지 유력 양반가문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는 개방적일 수 있었으며 근대문명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리하면 노구장은 마름으로서의 일정한 경제력과 경주 최씨 문중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학적인 소양과 함께 근대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구장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마을 내에서 노름을 금지하고 금주·금연운동을 벌였으며, 절미운동과 가마니짜기 등을 독려했었다. 그리고 공회당 터를 기증하여 이천에서 최초로 마을 공회당을 건립하였다. 마을창고를 마련하고 벼 300석을 비축하여 저리로 방출함으로써 가난한 동민들을 구휼하였다. 부녀자들에게 절미운동을 벌이도록 하고 큰 밭을 사서 공동노동으로 목화를 재배하여 부녀회 기금을 마련하였다. 공회당 앞에는 ‘근면 저축’이란 글씨를 새

겨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활 지침으로 삼도록 하였다.

노름이나 낭비, 게으름 등 농촌 내 ‘폐풍’을 일소하고 근검절약의 새로운 ‘미풍’을 조성하려는 노구장의 시도는 아○리가 처음으로 경험한 농촌근대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조선의 전 지역에서는 아○리와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일제는 당시 피폐해진 조선의 농촌 문제가 농민들의 태만과 낭비에 있다고 규정하고 근검절약과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소위 ‘농촌진흥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아○리에서 이 운동은 노구장의 지도력에 의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시기 농촌근대화운동은 전통적인 아○리 마을공동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구장권이 마을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제사상에 술을 쓰지 않고 냉수를 떠놓았을 정도로 근대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도로 초 강력한 것이었다. 우물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의 술병을 빼앗은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화되어 전수되고 있었다.

노인네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신하리 들어오는데 도가집(술집)이 있어. 술 받으러 가는 길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애들을 시켜서 댕병으로 술을 받으러 가면 노구장님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술병과 돈을 빼고 대신 물을 한 병 담아서 보내(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2월 12일자 구술).

1930년대 중반 아○리 마을에 우뚝 선 근대적 시설물인 공회당은 근대적 아○리 마을공동체의 상징물이자 노구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리 마을을 지키던 마을신목인 거대한 향나무가 노구장의 주도하에 과감하게 베어졌다.

구 회관 앞에는 이조 때 산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다섯 아름되는 향나무가 있었어. 그 향나무가 해방직전에 잘렸어. 그게 우리나라 국보야(국보급이라는 뜻임). 높이가 150m 정도(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보임). 둘레에 싸고 있는게 牙山인데 그래서 아○리야. 어금니 牙. 어금니같이 생겨서 아○리. 그 향나무를 왜 잘랐느냐 하면 옛날에 노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 이 양반이 향나무가

있어서 아○리에 큰 인물이 안 난다고 하면서 저 나무를 없애야 한다고 잘라 냈어. 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국보감 향나무인데 그게 없어졌어. 지금도 구회관 앞에 가면 캐면 그 뿌리가 나올거야(마을주민 박용관, 1932년생, 2000년 2월 12일자 구술).

이 시기 구장권, 혹은 구장권을 매개로 하는 근대적 신념체제와 국가권력은 전통적 마을신앙을 대신하는 권위로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장권을 매개로 농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아○리는 이 과정에서 마을정치가 면에 수직적인 구조로 편입되어갔다. 구장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마을대표자이며 국가의 행정적 지침은 구장을 통해 마을내부로 전달되었다. 노구장은 면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 몇 사람이 면사무소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되기 3개월 전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 때 면에서 하사한 만장이 펠릭이고 일본인이 추도사를 읽었던 장면들을 사람들이 기억한다. 이때가 전시체제가 막바지로서 물자가 대단히 부족했던 시절임을 생각할 때 면에서 노구장의 위상이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마을근대화의 경험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력이다. 우선 1938년 노구장의 근적비의 제작과 사후 근적비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존속은 노구장의 활동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표현한다. 그의 사후인 해방직후 아들이 면의 노무주임으로 복무한 경력 때문에 피습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이 사실은 마을의 공식 기억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 해방직후 노구장에 대한 마을 내에서의 비판은 없었으며 노구장에 대한 기억은 주로 긍정적인 것만 전수되고 있었다. 아○리 사람들은 일제시기 마을의 근대화운동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 분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어. 창고를 만들어서 쌀을 모아두었다가 그 쌀을 풀어줘. 그 사람이 동네를 지배했고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용했어.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어린아이를 엮고 다니면 그 사람에게 혼났어. 술주정을 하면 그 저녁에는 난리가 났어(마을주민 이명재, 1919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그 분은 마을에서 존경을 받았나요?) 그렇죠. 노구장님, 노구장님 하죠(마을

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그 당시에 이미 농촌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피폐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술이나 먹고 동절기에는 놀음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성행했었는데, 그 양반이 그래도 근검절약을 주창해서 마을의 질서를 잡았다 해서 공적비를 세워드린 것이야. 그 당시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이지(마을주민 박규화, 1953년생, 2000년 1월 19일자 구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아미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의 주도세력들은 노구장의 전성기인 193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라는 점이다. 아래 <표 2>의 1960~70년대 박정희 시기 마을이장의 출생년도를 보면 29년생, 32년생, 33년생(2명), 39년생으로 모두 노구장 전성시대에 아미리 마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다. 곧 박정희 정권 시기 아○리 근대화운동의 주역들인 청장년층은 어려서 노구장의 농진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었다. 이러한 점들과 박정희 정권의 수립이 노구장의 사후 15년 이후의 사건이라는 시기별 근접성으로 고려할 때 일제시기 마을 근대화운동의 강력한 경험이 이후 아○리 마을공동체에 강한 물질적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2. 해방~1950년대: 자율적 마을공동체의 건설

1) 이장권의 변화와 씨족갈등

해방직후 아○리 마을공동체의 특징적인 변화는 일제시기 형성된 구장권의 마을 내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이는 세 가지의 새로운 현상과 관련되는데 먼저 구장이 자주 교체되는 점, 대성 이외의 인물이 구장으로 선출되는 점, 그리고 일제시기에 표면화되지 않은 대성씨들 사이의 씨족갈등이 심화되는 점이다.

<표 1>은 일제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인물들이다. 해방직후 아○리 마을 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성씨가 아닌 ‘김’씨가 이장이 된 것이다. 해방이 되고 첫 번째 구장이 된 사람은 김동식이었다. 아미리 3대 성씨가 아닌 ‘김씨’인 그가 구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미리 마을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구장이 될 당시에 7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나이가 대단히 많고 씨족적 기반도 없는 그가 구장을 맡은 것은 ‘한학’에 밝은 것과 ‘마을어른’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억이 전해지지 않으며 주로 작명이나 호적 처리 등 마을 행정을 담당했다고 한다.

<표 1> 일제시기~1950년대 마을 구(이)장

대수	이름	재임년도	생년/초임나이	학력 및 이력	재임시 주요 활동	기타
1대	신○○	1910년대	노인	미상	미상	
2대	최장환 (노구장)	1920년전후	1870년	한학. 마름.	공회당, 마을창고 건립. 근검절약 운동.	근적비 (1945)
3대	최○○	1945년 3~8월		최장환의 아들		
4대	김동식	1945. 8~ 한국전쟁기	약 70세	한학		
5대	김호성	한국전쟁기 (6개월)		서울출신. 일본제국대학졸. 부 발면 대한청년단장.	주민들에 의해 퇴출됨.	
6대	신준천	한국전쟁기~ 60년대 초(9)	1910년 (43세)	마름	1953년 기계방아 기증. 정미조합 결 성.	근적비 (1987)

그러나 해방직후 마을에서 일어난 주목할 사건은 노구장의 아들이 피습을 당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노구장이 사망한 것은 1945년 3월이었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그의 아들 최○○이 구장직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노구장 사후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지 않고 그의 아들이 구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은 마을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음을 입증한다. 해방직후 최○○의 피습은 해방직후 ‘혁명적 시기’에 마을 내 대성씨들의 일제시기 ‘협력’에 대한 일정한 불만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반성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성씨가 아닌 김씨 이장의 출현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전쟁 중간에 아미리는 또 다시 이장권이 교체되었다. 김동식이 사임하고 이번엔 새로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 역시 대성씨가 아닌 김호성이라는 인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는 아○리 토박이가 아니라 일제 말기 소개(疏開)할 때 서울에서

아○리로 피난 온 사람이라는 점이다. 김호성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부발면 우익청년단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그가 마을민의 대표라기보다 뭔가 대외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해줄 ‘정치력’ 있는 인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장에 선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김호성은 약 6개월 만에 주민들의 반발을 받고 퇴임 당하였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가 선임되고 사임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한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단원들이 많았어. 서울서 이사 온 사람이 부발면 대한청년단장을 했어. 일본 동경 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 김호성. 배운 것도 많고 해서 이장을 시킨거지. 그런데 농촌하고 통하지 않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와라, 그 시간 딱 되면 문을 걸어잠그고 안 열어줘. 그러니 1년하고 이장을 도로 내놓았지(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노구장의 주민에 대한 권위적인 통제를 용인했던 주민들이 자유당과 결탁된 지역 우익 청년단장인 김호성의 근대적 시간규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 사건은 김 구장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 시기 면사무소로부터 지원되는 국가의 행정적인 권위가 마을 내에서 구장권을 뒷받침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와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는 1950년대 마을공동체는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지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대 구장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씨족갈등이 심화된 점이다. 씨족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은 구장권의 약화와 함께 문중조직의 힘이 그를 대신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씨족갈등의 발단은 기계방아에서 시작되었다. 아○리에 처음으로 기계방아가 들어온 것은 1950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마을 주민들이 연자방아 2대를 두고 이용하고 있었을 때, 세 사람이 합작으로 4마력짜리 발동기를 들여왔다. 이후 그 방아는 신준천의 단독명의로 되었다. 그런데 임씨 측에서는 임씨가 많이 사니까 또 다시 수익성이 높은 기계방아를 들여왔으며 신씨방아와 임씨방아는 마을 내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에 신준천은 자신의 방아를 동네에 회사함으로써 방아주도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신씨 방아가 동네방아가 되었기 때문에 임씨 방아는 아○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씨와 임씨는 방아문제뿐만 아니라 면의원 선거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면의원 선거는 임씨의 승리로 끝났다.

이때 방아를 기증했던 신준천은 김호성 이후의 마을이장이었으며 방아 회사로 오랫동안 이장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신 이장은 1952년부터 1960년까지 9년간 이장직에 재임하였다. 그는 서울지주의 마름으로서 노구장과 마찬가지로 경제력과 소작권을 둘러싼 실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아○리 3대 대성씨인 신씨 집안사람이었다.

이러한 씨족 갈등은 이 시기 약화된 구장권을 대신해서 상대적으로 씨족 조직이 강력한 응집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영월 신씨의 종손은 아버지 때에는 명절 뿐 아니라 기제사 때에도 모든 친척들이 다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만 기제사와 차례를 지내기 시작한 시기가 30~40년 전쯤이며 이것이 집안 간에 서로 멀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한다.¹⁴⁾ 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을주민 임완규는 ‘전기불도 없어 등불 들고서 좁은 논길을 걸어’ 제사에 참석하여 ‘첫닭이 울어야 제사를’ 지냈으며 ‘음식이 귀하여 제사음식 얻어먹고 집에 오면 꽤 늦었다’고 한다.¹⁵⁾ 문중계도 이 시기에는 활발히 운영되어 신씨의 경우 소중계가 조직되어 있었고 그릇 등을 구비하고 돌아가면서 잔치 때 이용하였다. 신씨 종손에 의하면 나중에 그걸 본 따서 최씨와 임씨도 그릇계를 했다고 한다. 일제시기까지 아○리에서는 마을공동체 조직이 씨족보다 우위에서 기능하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마을공동체의 약화와 함께 씨족조직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율적 마을공동체와 정미조합의 결성

1950년대 아○미리의 마을의 변화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씨족 갈등 속에서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었던 점이다. 이것은 신준천의 방아기증에서 비롯된 아○리 정미조합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14) 마을주민 신중백, 1930년생, 2000년 1월 19일자 구술.

15) 마을주민 임완규,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기계방아가 들어오기 전 아○리에는 연자방아를 이용한 방앗간에 두 개 있었다. 노동력을 현격히 절감시키는 기계방아는 연자방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으므로 1950년대 농민들에게 절실한 ‘근대적 농기구’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값이 비싸고 사용과 유지가 쉽지 않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물건이었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는 기계방아를 돌리는 전문 방아꾼이 생겨났으며, 주로 이장 경력자이거나 마을 내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동네에 방아를 도입하여 방아권을 독점하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이는 아○리뿐만 아니라 이천의 많은 마을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정미소라고 공탕기(4마력 반짜리)라고 있었어. 신준천이 발동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발동기로 양수기 물을 펴어. 석유 넣어서. 그걸 여름이면 물을 푸고 가을이면 그걸로 방아 찧고. 사람이 그 집으로 안가니까 발동기를 끌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었어. 우리 큰 집에 큰 소가 있어 맨날 그 소를 빌려서 끌고 다녔어. 아미2리 라제울에 임인규씨가 또 발동기가 있었어. 여기 임씨네가 많이 사니까 자기 집안 것을 찧으려고 이리 끌어들여 온 거야. 발동기가 대립하게 된 거지. 신준천이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서 찧다가 내가 발동기를 동네에 회사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임씨 방아가 나갈 수밖에. 동네 거에다 찧으면 동네 수입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동네 재산이 생기는 것이지. 용공 뜬 것을 동네 재산으로 삼아서 비용을 썼어. 그때는 리경비는 안 거뒀어(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1월 8일자 구술).

신준천의 기계방아 회사로 아○리 주민들은 정미조합을 결성하여 동민소유의 기계방아를 운행하였다. 정미조합은 6명의 이사진이 있었으며 조합장은 방아 회사자인 신준천이 되었다. 조합원 출자액은 구좌당 백미 5말로 1~4구좌로 차별적으로 출자했으나 이후 조합원당 2구좌 쌀 1가마로 통일하였다고 한다. 출발 당시 아○리 정미조합의 자격은 마을주민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였으며 결성 당시 조합원은 70여명이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당시 아○리에서 농사를 짓는 세대를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미조합은 개념적으로는 전체마을 운영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정미조합의 범주는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생산공동체 곧 아○리공동체였으며, 이장이 조합장을 겸임하고 정미조합의 수익금은 조

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이외에도 동리 재산으로 축적하였다.¹⁶⁾

1950년대 정미조합의 결성은 해방이후 아○리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보여준다. 정미조합은 한편으로 방앗간의 운영과 수익분배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논의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또 한편으로 아○리 마을공동체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다. 방앗간의 수입은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 경비로 이용하고 또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아○리는 정미조합이 결성되고 리경비(이장세)를 따로 거두지 않았으며 상당한 액수의 정미조합 기금을

<그림 4> 신 이장 근적비



비축하였다.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 지원 시멘트로 마을회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민들의 기부금도 받았지만 정미조합의 기금도 상당액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마을회관의 3차 신축 시에도 정미조합기금이 이용되었다. 정미조합을 결성하여 마을공유재산을 확대시키는 데 공을 세운 신 이장의 업적은 또 하나의 마을 기념물인 <사진 4> 신 이장의 근적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회관 앞에 세워진 신 이장의 근적비의 뒷면에는 정미조합 결성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公은 寧越人으로 西紀 一九一一年 九月 二日 誕生하여 一九八四年 十二月 七日 享年 七十三歲로 他界하셨다 天性이 勤儉하고 誠實하였으며 每事에 所信이 있고 不義에 屈하지 아니하였으며 始作이 있으면 반듯이 成就가 있었다 公은 部落里長을 九年間 歷任했으며 部落發展을 爲하여 協同 團結 勤勉을 最우선으로 하였다 특히 西紀 一九五三年度에 自家精米所를 마을에 喜捨하여 部落基金 造成에 공이 크므로 그 功을 追慕하는 情이 懇切하여 높은 功績을 길

16) 정미조합의 운영방식은 마을주민 방인봉(1933년생)·박규화(1932년생)·최동석(1958년생), 2000년 1월 9일자 대담 구술.

이 後世에 傳하고자 이 비를 세우다.

그는 정미조합을 결성한 공으로 이승만 정권기 연속해서 이장직을 역임할 수 있었으며 근대교육을 받지 않은 곧 구세대로서 이장이 된 마지막 인물이었다.

III. 박정희 정부와 마을의 변화

1. 1960년대: 청년이장과 마을권력의 세대교체

1960년부터 아○리 마을운영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때부터 이장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낮아지며 청년들이 마을운영을 주도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래의 <표 2> 1960~1970년대 아○리 이장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 1960~1970년대 아○리 이장들

대수	이름	재임년도	생년/초임나이	학력 및 이력	재임시 주요 활동	기타
7대	안봉학	1960~61 (2)	1929년생 (33세)	부발국교 새말 방장(坊長). 상의군인.		
8대	신기영	1962~67 (6)	1932년생 (31세)	서울 성동고 졸. 한양 공대1 중퇴.	씨족갈등 없앴.	
9대	임완규	1968~73 (6)	1933년생 (36세)	부발국교, 서울 경신중학, 이천농고 졸.	정미소 재건립. 마을도로 포장 및 확장. 전기시설	‘새마을훈장’ 수여
10대	신현승	1974~76 (3)	1939년생 (37세)	경찰공무원.	야산개발 경지확대, 도로 확장. 지붕개발.	
11대	방인봉	1977~79 (3)	1933년생 (46세)	이천농고 졸.	마을회관 1차 신축. 마을공유지 확장. 전화설치	

먼저, 정미조합을 결성한 신준천 이장 다음으로 1960년부터 1961년까지 2년간 이장을 지낸 사람은 안봉학이다. 당시 안씨의 나이는 33세였다. 그는 전쟁 때 군

대가 갔다가 화염방사기를 뒤집어써서 화상을 입은 상이군인이었으며 마을일에 주도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장 선임 직전 1950년대 후반에 ‘방장’을 맡고 있었다. 17) 안씨는 5·16 이후 상이용사 특혜로 수원 조흥은행에 취직함에 따라 이장직을 사임하였다.

다음으로 이장을 맡은 사람은 신기영이다. 그는 안씨보다 더 젊은 나이인 31세에 이장을 맡았다. 신씨는 서울 성동고를 졸업하고 한양공대를 중퇴한 인물로 마을에서는 상당한 고학력자이다. 신씨는 아○리에서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아니며, 아○리로 돌아온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이장을 맡았다.

그 다음으로 1960년대 후반 이장이 된 임완규 역시 선출 당시 36세에 불과하였다. 그는 이천농고 출신으로 서구의 새로운 영농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 4H나 청년회 활동을 마을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1960년대 아○리의 청년이장의 등장은 마을공동체의 주도세력에서 역사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 정부 수립과 함께 청년 이장층의 등장은 넓게 보면 당시 마을에는 식민지시기에 태어나서 근대교육을 받은 근대화 1세대들이 성장하여 이들이 광범한 청년군을 이루고 있었던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적어도 보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안봉학은 부발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신기영은 서울 한양대학교 중퇴, 임완규는 이천농고 출신이다. 곧 이들은 아○리 마을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1세대들에 해당하며 이 시기 마을에는 이들과 유사한 동년배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이장과 그 하위의 방장, 그리고 반장 등으로 충원되고 있었다.

또 하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농촌개발사업들은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물질적인 보상 없이 잦은 모임과 정신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받고 민첩하게 여러 가지 실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마을 청년층이 관공서 출입을 전담하고 나아가 마을일을 주도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다. 1960년대 초 재건국민운동이 전개될 때 이 운동과 관련하여 아

17) ‘방’이라는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해서이다. 이승만 정권은 주민의 직선제였던 洞里長을 임명제로 바꾸고, ‘동리의 하부조직인 통과 반을 신라시대의 최하 행정단위인 방으로 개칭하여 말단행정을 강화하고자’하였다. 이 법안의 의도는 전국 각지의 말단행정을 강화하고 세포조직까지 관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 아○리에서도 세 개의 방(坊)이 생겼다.

○리에서는 (재건)반상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도자’ 교육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¹⁸⁾ 한 주민은 재건국민운동할 때 재건학교라는 것이 있었으며 그는 서울 수유리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세 번 갔다고 한다.

청년이장의 등장이 박정희 군사정권의 수립 이전부터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농촌개발사업들이 시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에서 실력과 시간을 겸비한 청년들이 마을운영의 실무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이장과 그들의 동년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1960년대 마을공동체에 나타나는 주목할 변화는 씨족갈등의 타파였다. 앞서 서술했듯이 1950년대는 방아문제나 면의원 선출문제에서 신씨와 임씨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했다. 비록 신씨 방아의 동네 기증으로 방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적으로 무마되었지만 임씨와 신씨는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씨 집안의 청년 신기영이 이장이 되면서 마을청년들은 의기투합하여 씨족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신기영 이장때부터 씨족갈등이 사라졌으며 이장이 한 세대 아래로 내려온 것이 씨족갈등을 없애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¹⁹⁾ 1960년대 형성된 이와 같은 일군의 근대교육을 받은 마을청년들은 1970년 초 아○리 새마을운동을 담당하는 주역들이 되었다.

2.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자립마을 포상

아○리의 새마을운동은 이천 부발읍 일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새마을운동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판단되자 전국의 마을을 주민의 참여도와 발전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국 마을을 새마을운동에 대한 참여의 수준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 마을로 구

18)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재건국민운동은 ①민족적 자주성, 자조, 협동단결의 정신으로서 사회정의 실현하며, ②민족혁명의 전위로서 국민운동의 핵심세력을 훈련하며 재건청년회, 재건부녀회 회원 360만 명을 확보하고, ③자립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줄인다고 되어 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고 시·읍·면에 지부를 두었다. 당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공화당 창당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19) 마을주민 방인봉씨,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분하였으며 최종단계인 자립마을로 선정되면 모든 방면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하였다. 아○리는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자립마을’로 포상을 받았다.²⁰⁾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아○리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된다. 첫째, 마을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마을길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졌다. 보상 없이 땅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에 땅 주인의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청년회에서 ‘강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으며 지붕이 개량되었고 마을에 1대의 전화가 가설되었다. 마을에 앰프가 설치되어 그동안 마을 일을 알리던 ‘소임’이라는 마을직역이 사라졌다고 한다.

둘째, 마을공유재산의 확대이다. 이 시기에 새말과 큰말을 가르던 장등을 짚는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공사의 결과 마련된 평평한 부지가 마을공유재산으로 확보되었다. 여기에 마을정미소가 건립되었으며 마을회관의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을 구관장도 생겨났다. 1950년대에 결성된 정미조합은 운영이 순조롭게 되어 많은 수익을 낳았다. 새마을운동기에는 그동안 이동식으로 이용되던 기계방아를 마을정미

<사진 5> 1978년 건립된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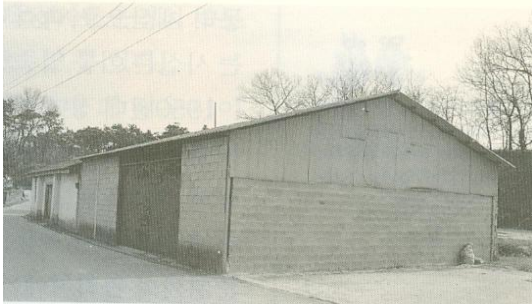
소를 건립하여 고정식 방아로 바꿈으로써 마을방아가 마을정미소로 확대발전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건축된 낡은 마을회관을 대신하여 새로운 마을회관이 신축되었다. 구 마을회관은 유치원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공

적 공간을 확대시켰지만 이는 실제로는 일제시기 공회당건물과 1950년대 이후의 정미조합을 기반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5>와 <사진 6>는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기념물로 이 시기에 건립된 마을회관과 정미소(터)이다.

셋째, 마을운영 조직의 변화이다. 청년회와 부녀회가 조직되었으며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청년회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 ‘의기투합’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청년 주도층이 등장한 바 있었으며 그때 형성된 그룹이 좀 더 조

20)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72년도 기초마을은 전 마을 수의 30%, 자조마을은 57%, 자립마을은 7%였으며, 1977년에는 자조마을이 33%, 자립마을이 67%로 성장한다. 내무부, 앞의 책, 32쪽.

<사진 6> 마을정미소터



직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회는 사실상 이장과 반장을 배출시키는 기반이자 동시에 이들의 동년배 집단으로서 마을의 주축이 되는 조직이었다. 이 시기 이장과 반장체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가동되었다.

우리 반장들이 그때 5명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했어. 그때는 하자면 다 되니까 밤중이라도 가고. 한 반이 몇 호씩 책임졌어. 한 반이 15호도 되고 골목대로 잘라서 반장이 다니기 좋은 대로 잘랐지. 그때는 반장들이 일을 다했어. 잡종금, 세금 받는 것도 다 돌아다니면서 받고(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청년회와 달리 부녀회는 1972년 조직되었으며 부녀회의 조직과 활동은 자발적이라기보다 국가주도의 새마을운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녀회 주도로 ‘절미저축’사업이 추진되고 ‘구관장’이 운영되었으며 개간된 산에 부녀회 명의의 공동경작지를 마련하여 공동노동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부녀회는 막걸리 등을 팔아서 부녀회 자금을 조성하였다. 1973년부터 부녀회 자금의 일부로 부녀회 관광이 시작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아○리에서 새로운 남성권력의 출현은 근대교육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여성권력의 출현은 국가의 동원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부녀회 활동을 했던 여성들은 지금도 그 시절에 대해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무도 호명하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을 국가가 호명해주었던 것이다.

잊을 수가 없어.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리 부녀회장 김재숙씨’라고 많이 알아주었다고. 면, 군의 부녀계장들도 많이 칭찬을 해주었고 위에서 지시 내리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썼어요. 혼자 살면서 힘든데 부녀

회장까지 한다고 동네사람들이 칭찬했어. 새마을사업이 72년도에 시작되었고 새마을사업을 처음 하는데 부녀회가 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어. 다달이 한 번씩 부녀회가 있었어. 부녀회는 그때는 새댁만 안 왔지 삼십 대에서 오륙십 대는 다 모였어(마을주민 김재숙, 1931년생, 2000년 2월 11일자 구술).

넷째, 마을신앙의 소멸이다. 일제시기 노구장의 농진운동 시기 이후 새마을운동 기에는 또 한 번의 마을신앙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을 내에서 신성시되었던 마을의 진산인 ‘장등(깔딱고개)’이 깎여서 사라진 것이다. 그때까지도 장등은 신성시 되어 초상이 났을 때도 상여가 장등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장등 꼭대기는 큰 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냥이 있어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돌을 놓고 무엇을 매달고 하였다고 한다. 장등을 깎는 공사를 할 때 노인들은 모두 반대를 했지만 청년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강행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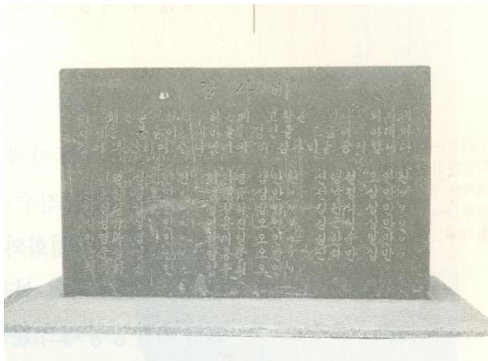
1960년대 30대 이장들의 활동기간을 거치면서 청장년층이 마을의 주도권을 잡게 되며 새마을운동기에는 이미 아○리에서는 마을권력이 세대교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마을청년이 목메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자 은연중에 장등공사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액땜을 위한 고사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등은 아○리의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가르는 경계였기에 장등을 낮추는 공사를 통해서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은 물리적인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등과 엄나무는 새말과 큰말을 분할하고 있었던 면도 있지만 아○리 마을주민들을 결속시킨 정신적 구심이었다. 따라서 장등의 해체는 주민통합의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마을공동의 신앙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반발이 적었으며 지도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의 장애가 없었다. 아○리 청년들과 사람들은 국가주도의 근대화운동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리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노구장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으며 초기 근대화 운동에 대한 우호적인 역사적 경험 위에 토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아○리 새마을운동의 자원동원 구조를 살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는 아마리 마을환경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금은 1950년대부터 운영되었던

정미조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정미조합은 흑자를 냈고 있었고 여기에서 마을공동경비 및 마을회관 건축비가 제공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가 제공한 시멘트와 자립마을 지정에 대한 하사금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회관의 건립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던 정미조합의 자금과 또 외지에 나가있는 마을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기부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불가능했다. 다음 <사진 7>은 마을기념물로 새마을운동기 마을회관 건립에 기부했던 마을을 떠나있던 주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 임원규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살다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했어. 서울로 간 사람들 전화번호를 며칠 동안 찾아서 적어서 서울로 찾아갔어. 가서 달라니까 기분이 좋게 척척 그때 돈 10만원씩도 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돈으로 그것(마을회관)을 마무리했어(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사진 7> 마을기금 기부자기념비



또 하나의 지적할 부분은 아○리 새마을운동의 성공의 이면에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시점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맞물려 있었다. 아○리는 영동고속도로 변에 위치하는 마을로 1971년 고속도로의 개통은 아○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리를 관

통하고 지나가며 인터체인지가 아○리에 설치되었다. 도로공사 사무소가 그곳에 마련되자 도로공사측은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아○리와 도로공사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리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도로공사의 사업에 보수를 받고 참가하였으며, 도로공사는 아○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기를 띤 것은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절개지 사방공사일을 맡게 된 것이 가장 컸다.

도로공사와 아○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도로공사 때 산을 깎은 후 생기는 질 터구를 덮기 위한 취과 담쟁이 공사가 필요한데 그걸 청년회에서 맡았어. 우리도 일당을 받고 남는 공사금액으로 청년회 기금을 마련했다고. 영동고속도로 만들고 얼마 있다가(마을주민 박규화, 1932년생, 2000년 1월 19일자 구술).

도로공사로부터 호법—원주간 사방공사를 맡게 되면서부터 청년회의 활동은 눈부시게 활발해졌다. 이 사업으로 청년회는 1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부를 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를 청년회 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도로공사측과 아○리 마을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1972년 마을도로 확장·포장공사와 정미소 건립공사, 엠프 설치의 도로공사의 무상 장비협조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도로공사 장비과장의 도움으로 불도저를 이용하여 정미소의 터를 닦을 수 있었으며 마을의 나쁜 길도 이 시기에 도로공사의 도움으로 덤프트럭을 빌려서 자갈을 실고 와서 많이 고쳤다고 한다.²¹⁾ 이와 같이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이라는 조건은 아마리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마을공동사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새마을운동의 動因들

이상에서 볼 때 1970년대 아마리 새마을운동의 ‘성공’이라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아○리 마을의 역사적 경험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첫째, 일제시기 농촌 근대화 운동의 규정력이다. 일제시기 아○리는 이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회당이 설립되었을 정도로 근대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마을이었다. 노구장으로 일컬어지는 마을지도자에 의한 근대화운동의 경험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기 노구장의 주도하에 일어난 아○리 마을의 근대화를 단순히 일제의 지배정책으로서의 ‘농진운동’이라 고만 규정할 수 없다. 일제의 농진운동이 근대적 계몽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신과 노름 타파, 근검절약, 금주금연 등의 운동

21) 마을주민 방인봉, 1933년생, 2000년 1월 8일자 구술.

은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농촌문제 해결의 보편적인 방안들로서 제기하는 사안이었다. 노구장은 친일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리 마을 주민들에게 ‘친일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마을지도자’로서 긍정적 이미지로서 강하게 남아있었다.

둘째, 해방이후 아○리는 씨족갈등이 대단히 격화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갈등조정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리의 노장층들은 국가의 정책과 무관하게 쌀 생산 공동체로서 정미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수익의 공동분배뿐 아니라 마을운영자금의 충당, 그리고 상당한 공동자금을 비축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다. 1950년대 아○리는 그동안 ‘무능’과 ‘무기력’으로 보아온 1950년대 농촌마을의 이미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약화되자 씨족갈등이라는 혼돈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기치유와 재건의 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약 1953년부터 운영된 아○리 정미조합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아○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근대교육을 받은 새로운 역사세대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960년대부터 마을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이들은 마을 내의 씨족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을 내 청년층의 활약은 10년 동안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새마을운동기에는 마을정치의 세대교체가 완전히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주도의 힘과 맞물려서 마을 내 노인층의 반대까지 무마할 수 있는 실권을 가졌다. 마을장등공사는 노인층의 반발을 받았지만 실력으로 강행한 사건이었다. 곧 마을 내에서 역사세대의 교체는 새마을운동의 기반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다.

넷째, 아○리의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새마을운동’과는 별개의 외적 조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방공사를 맡음으로써 아○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것이 1970년대 아○리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환경 개선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도로공사 측의 무상원조에 의해서 아○리는 다른 지역보다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영모, 『농촌지역사회조직론』. 서울: 민음사, 1967.
-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서울: 고현, 2003.
- 김영미, 「어느 농촌운동가의 생애와 1950~60년대 농촌근대화운동」. 『민족운동사연구』 51집, 2007, 329~363쪽.
- 내무부, 『영광의 발자취: 마을단위 새마을운동추진사』. 서울: 마을문고본부, 1978.
- 농림부, 『새마을로 가는 길』 2집, 서울: 농림부, 1973.
- 민상기, 「농민의 새마을운동 참여와 마을공동체 의식」. 『농촌경제』 제3-1호, 1980, 89~95쪽.
- 박섭·이행, 「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997, 47~67쪽.
-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호, 1999, 38~80쪽.
- 새마을운동연구회, 『새마을운동10년사』. 서울: 내무부, 1980.
- 유병용·최봉대·오유석,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서울: 백산서당, 2001.
- 이천시사편찬위원회(편), 『이천시사』 제6집. 이천: 이천시사편찬위원회, 2001.

국문 요약

이 논문은 한국 농촌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한 마을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마을 이장권과 마을공유재산의 변화를 추적하여 식민지의 경험이 해방이후 어떻게 연속 혹은 단절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주도의 근대화 정책과는 다른 농민사회의 자율적 움직임은 없었는지는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마을은 1973년과 1978년 새마을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로부터 ‘자립마을’로서 선정되어 두 차례나 표창을 받은 바 있었다. 이 마을의 근대화운동은 일제시기의 농촌진흥운동의 경험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한 마을구장은 마을 내에서 신화화되어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마을엘리트들은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던 193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들이었다. 이 마을에서 자율적인 마을공동

체가 결성되었던 것은 국가권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씨족갈등이 심각했던 1950년대 중반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신식방아를 소유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정미조합을 결성하였다. 방앗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마을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마을공유재산을 축적해갔다. 마을정미소를 통해 축적된 마을재산은 새마을운동기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 투고일 : 2008. 1. 11.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근대화(modernization), 농촌진흥운동(Nongchon Jinheung Undong; the Rural Promotional Movement), 마을사(Maeulsa; the history of a village), 새마을운동(Saemaetul Undong; The New Village Movement), 이장(ijang; the headman of a village).